◈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1995년의 새해에 부치는 글

새해엔 화해와 용서의 한 마당을 이루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길이 이 나라를 보우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소리높여 찬양을 올려드리자

지금 우리 나라는 커다란 위기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큰 기회이다. 위기를 만난 사람의 해결방법에 따라서 위기는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큰 성공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1994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이제 1995년이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란 울타리를 넘어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와 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년 4%씩 줄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흐름이 종교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교회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병은 영적인 자폐증과 영적인 고혈압이다. 영적인 자폐증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을 펼치는데 인색하다. 게다가 영적인 고혈압 증세가 있어 언제 경화된 혈관이 터질지 불안한 상태이다. 그 원인은 너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다른 교회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부터 주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 주며 섬기는 운동, 먼저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되자.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산다.

왜 우리 나라에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경한 개혁의 지를 가지고 개혁을 주도하시는데도 개혁과 변화는 아직도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 이유와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예배, 기복신앙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무슨 개막식에서도 돼지대가리를 놓고 절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민속전통의 계승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각종 샤마니즘과 무속신앙들이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당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와 신부의 숫자의 열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우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형의 우상들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돈이 바로 우상이고, 탐욕이 바로 우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황금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 이것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면 되지만 심령이 정결하려면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 지금 수많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른 것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심령을 잠그어 케케묵은 온갖 죄악의 때들을 말끔히 씻어 정결케 해야 한다.

세번째로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는 옷을 입지 않고 있거나 때묻은 옷을 입고 있다. 벗은 몸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온갖 욕심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은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벧엘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한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 도성에 의인 열 명이 있는가를 물으셨다.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열 명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땅에 관영한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먼저 눈물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서울장안과 그리고 이 민족의 심판을 보류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의인 열 명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잡힌 것도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인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는 이 희년에 우리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한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 서로 용서하고, 주고,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단들이 하나가 되고, 영호남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개혁이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심령의 변화가 선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희년을 맞는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변화에 앞장서자. 그러면 사회도 따라서 변할 것이요 우리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여 주님의 재림을 위한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새해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갈라진 북녘땅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그래서 화해와 용서의 한 마당을 이루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길이 이 나라를 보우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소리높여 찬양을 올려드리자.

1995년 1월 1일 새해 아침

신 성 종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대통령 김영삼 장로 성탄예배 대통령 김영삼 장로와 영부인 손명순 권사가 지난 성탄절 대부 성탄 축하예배에 참석하여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상). 매 주일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탄절을 맞으며 함께 뒤하여 기도하여온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새로운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교우들도 오랫만에 교회에서 만나게 된 김영삼 장로에 대해 따뜻한 환영과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며 기뻐했다(우).

당회장 목사와의 신년 특별대담

10만 성도, 100교구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새해가 왔다. 새해에는 늘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언제나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어 신년도 각 부서에서 일할 일꾼들이 임명되고, 새로운 일들을 맡으면서 앞날에 대한 설계와 계획들로 새로움을 더하고 있다.

바쁜 연말의 일정을 비집고 들어가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을 만나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새해의 계획과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누구나가 사람은 서로 가까이서 신뢰를 갖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과 교회의 온 교우들과의 이런 일체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주간충현>이 무엇인가 해야된다 생각하면서 목사님과 사심없이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드린다.

일 시 : 1994년 12월 15일
장 소 : 당회장실
대담자 : 이 형 수(집사, <주간충현> 편집장)

▷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 오신지도 이제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기에 이제부터는 좀 더 활발하고 힘있게 목회를 하시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기 당회에서 채택된 내년도 목회계획을 볼 때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변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더욱 많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무슨 일을 맡게 되면 먼저 상황파악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한 파악과 두번째는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대두된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일의 분석, 세번째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 서너가지 정도를 파악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충현교회에서 자라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살리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교회라는 것이 갑작스런 변화나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현교회 당회장으로 왔을 때에 평화스러운 환경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심한 진통을 앓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여러가지 아픔을 치유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현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또 우리 충현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하는 인식이 생겨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목회계획은 일일이 각 위원장별로 다 면담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게 하고 저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의 목회의 꿈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합의된 그런 방향이라 그렇게 보면 좋죠.

▷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교회성장론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죠. 국민일보, 목회와 신학, 월간목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성장이라고 할 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적, 외적 성숙과 발전을 포함한 개념인데요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교회는 반반이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고 할 때도 반은 해당되고 반은 아닌것 같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를 보아도 반은 해당되고 반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충현교회에 다니셨고, 그동안 교회에서도 여러가지 일을 하셨고, 이제는 당회장으로 계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충현교회를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성장요인 중 우리 충현교회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수신앙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 받았는데 김창인 목사님은 소위 재건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기선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요. 그런데 재건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적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보면 정치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신앙, 성경대로의 보수신앙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수신앙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 받았는데 김창인 목사님은 소위 재건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기선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요.
그런데 재건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적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보면 정치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신앙, 성경대로의 보수신앙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자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단절되어 섬처럼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사회,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와 적응이 되어야 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와 격리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 충현교회의 흐름으로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돌출내기라고할까요? 충현교회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의 인물 즉 선교사, 목회자 기르는 데는 성공했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대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에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일꾼을 기르는 점에서는 다소 모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면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분석의 시작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가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자폐증 - 그러니까 방안에 갇혀서 안에만 보지 밖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고혈압 - 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서서히 고쳐나가야 하는데 부정적인 면에 촛점을 두면 못고칩니다. 지금 우리의 장점을 키워나가면서 서서히 이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길림성의 신학원을 짓는다든지, 북한선교를 위해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문제 - 사실 원로 목사님이 북한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하셔서 '북한선교' 하면 우리 충현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충현교회와 북한선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북한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과 금년에 제 나름대로 평양제3병원에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약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모금하고 다른 분들을 소개하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에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관을 지었으니 구체적으로 봉사관을 통해서 뭔가 해야되겠다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성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순수성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면에서 사회와 연결되는,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제 생각이요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장점은 지키면서도
서서히 조심스럽게 사회와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도 가만히 보면 순수성을 얘기하다가
가끔 대사회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봉사관을 지어 말로만 봉사관이 아니라 정말로 대 사회적인 봉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방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폐아들, 장애아들을 기르는 일을 학교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성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순수성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면에서 사회와 연결되는,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제 생각이요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장점은 지키면서도 서서히 조심스럽게 사회와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도 가만히 보면 순수성을 얘기하다가 가끔 대사회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교회의 체질이나 분위기,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사회 봉사나 구제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청원이 들어오면 다 해주고 합니다. 제가 40년사를 만들려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안하고 다 도와줬드라구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큰 일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교인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조직이나 전체의 흐름이 잘 안되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교회 전체가 참여해서 할 때 큰 힘이 나오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에는 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도와주고 끌려가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만들고, 연구하는 가운데 만들어내서 우리가 리더쉽을 가지고 다른 곳과 연결해서 뭔가를 해야합니다. 그냥 끌려만 다니는 것은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만 이제는 소극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회봉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인데 제가 보기에 숫자적으로는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을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도 상당히 사회속에 깊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들이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목사가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점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대사회 활동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히려 강조를 하되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사회 활동을 해서 사회에 뭔가 유익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목사님이 아까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교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 교회의 체질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교회는 역시 예배라든가 교육이나, 선교, 전도가 활성화되고 또 교인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금 좁혀 들어가서 보면 예배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을 어떠십니까?

▶ 예배는 물론 의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가 좀 장중하고 엄숙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의식적인 것이 함께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나 설교 스타일을 뷔페식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것, 때로는 미지근한 것, 때로는 뜨거운 것, 때로는 질긴 것, 때로는 부드러운 것 등등 골고루 교인들에게 줘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씁니다. 예를들어서 금요집회는 부흥회와 같이 우리가 맘껏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런 체질에 안맞는 분들은 금요집회 같은 때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늘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이고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것 중의 그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때는 마치 신학교에서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중간 정도로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게 합니다. 또 주일 낮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적예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예배인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려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다구요. 그러나 교인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성경봉독 같은 것도 평신도가 참여를 한다든지, 또 시편 교독을 하는 것도 일종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참여하는 것을 자꾸 넓혀간다든지, 간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다보면 사람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이 예배라는 것이 온 교인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점에서 간증은 평신도들을 참여시키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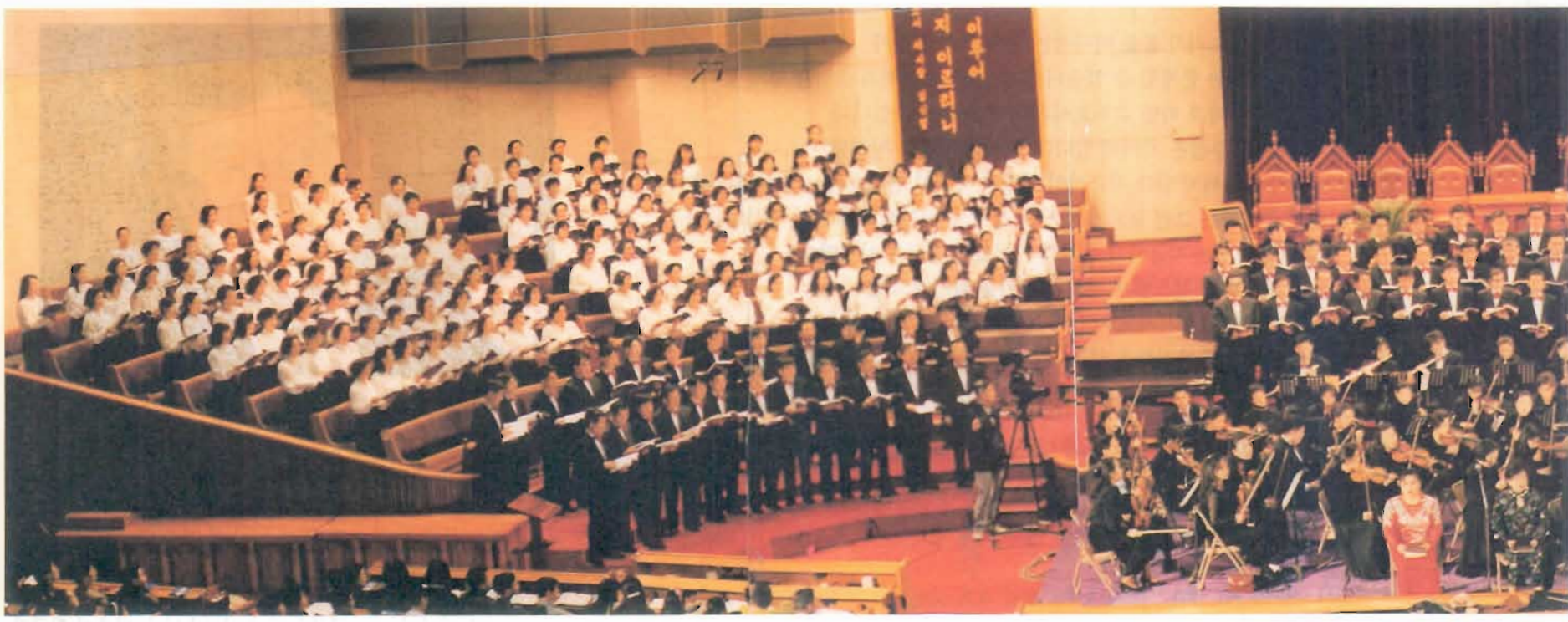
▷ 목사님이 말씀하신 참여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것이 숙제가 되겠군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키우자' 라고 해서 교육도 참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천국일꾼이 무엇이냐라는 논쟁도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상황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교회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그만큼 책임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교회교육을 위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금 사회교육과 교회교육의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그게 뭔고하면 요즈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요새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해가지고는 애들이 어렸을 때에 왕자처럼 공주처럼 너무 위함을 받고 자랐습니다. 더욱이 황금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입시문제 때문에 애들이 사회에 격리된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새 애들은 잘 먹어서 예전보다 키는 10-20Cm 장대같이 큰데 속을 보면 정신적으로 미숙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거의 다 미숙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뭘 못합니다.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미숙아들의 특징은 에고이즘(이기주의자)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함만 받으려고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고 하면 지식과 기술을 넣어주는 것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양, 말하자면 전인교육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지식만 가르치고 요절이나 달달 외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인격화되어지는, 그들의 생활화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지식위주, 혹은 주입식 위주의 교육은 탈피해서 좀더 그들에게 생활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회교육이 모든 연령층,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등, 대학, 청년 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 이 세 부서에 전임 교역자제를 도입하면서 모두가 희망과 기대 가운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인사이동에서 이런 전임제가 깨어지고 또 많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억측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지난해 말에 인사문제를 결정하면서 한 가지 고심한 문제는 교역자들을 몇 사람을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의 숫자에 비해서 교역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

새해에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자 지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라는 고백을 수십번씩 되이며 보낸 주간이었다. 12월 23일(금), 오후 8시 본당에는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몰려온 성도들로 인해 발디딜 틈도 없었다. 본당 2, 3층은 물론 통로에까지 보조 방석을 깔고 앉아야 했다. 줄잡아 5,000여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었다. 연합찬양대의 '메시아' 는 시종 은혜와 희망과 감사와 힘이 넘친 연주였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합창자와 오케스트라, 독창자, 지휘자, 반주자, 청중이 모두 하나가 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본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편상 목사님들의 수는 줄이고, 전도사님들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몇몇 분들이 나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전임제가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임자가 나오면 또 기용하도록 할 터인데 지금 걱정은 여자 전도사님들은 오래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오는 고충이 팽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이며 전부인 선교는, 목사님께서 북방선교와 회교권을 강조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우선 제가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방선교에 역점을 두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통일이 되려면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가지 비결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염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될 것같습니다. 또한 우리 충현교회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북한선교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북한선교를 실제적으로 아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선교가 제가 생각하는 순서상의 넘버 원입니다.

▷ 그러면 북방선교라고 할 때는 북한선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우선 그렇죠. 북한선교가 첫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선교를 해야 하는데 북한선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지금은 간접선교밖에는 못합니다. 간접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 앞으로 가능하다면 러시아에 우리 선교사를 보내면서 서서히 거기서부터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북방선교를 첫번째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북한선교와 연결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회교권 선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교권 선교는 한국사람밖에 못합니다. 그 이유는 회교권 선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못해요. 좀 지나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지독한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 한국사람이라구요. 한국사람밖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로 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몫이 아니겠느냐? 물론 회교권을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씨앗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는 일은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번째로 회교권선교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문이 열리면 해야죠.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두 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던지 전교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동참할 때 큰 힘이 나오고 의미가 있게 된다. 북한선교 하면 충현교회를 떠 올릴 정도로 북한선교를 처음 주장했던 우리 교회다. 예전에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하며 북한선교에 대한 인식과 기도의 불을 지폈었다면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선교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그런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는 일일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최근에 금요집회나 주일 오후 특강 등을 통해 북방선교 (북한선교)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북한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게 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들도 북한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안타깝고 절실한 필요를 모두가 공감하지는 뜻일 것이다.

통일이 되려면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가지 비결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염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될 것같습니다. 또한 우리 충현교회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북한선교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북한선교를 실제적으로 아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선교가 제가 생각하는 순서상의 넘버 원입니다.

▷ 전도문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시작, 금년으로 세번째 시행했는데 찬반과 부정, 긍정적인 시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태신자를 정하고 1년 내내 그 이상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 시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장시간 동안 태신자를 추적할 만한 이웃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기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했는데 전도를 안하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안하는 신자는 이미 영혼이 죽은 신자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기쁨은 여러면에서 오지만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나 긍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의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교회를 책임지고 맡을 능력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만은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도하면 좋은데 훌륭한 평소에 항상 전도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전도운동이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만 잘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숫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인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해야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데도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평소에 늘 전도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이해가 됩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대 교회가 팀티칭 시스템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을 다 잡아서 끌고가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교회성장에 대한 글을 볼 때마다 늘 빠지 않는 '평신도훈련'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께서 지적해주셨다는 실생활 가운데 성경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뭔가 확신되는 분위

할렐루야, 할렐루야……왕의 왕, 주의 주" 메시아 찬양의 소리. 소리들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다. 우리는 찬양생활의 권능을 알고 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의 옥문은 열려지고, 모든 악한 군대들은 물러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새해에는 이렇게 일년 내내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언제나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우리의 처소를 천국의 지점으로 만들어 가자.

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새가족위원회도 만들고 양육에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훈련원을 운영한다든가 할 수도 있을텐데요.

▶ 지금은 우리가 이름을 달리합니다만 예를들어서 청지기훈련이니 뭐니 하는 것이 전부 다 평신도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평신도훈련원이 하나 제도적으로 탄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들 많이 느끼고 '그것을 하자' 할 때에 그래야 먹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구체적인 복안이 서 있고 제 임기동안은 물론 임기 이후에 내가 물려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라는 말을 제가 요즘 가끔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제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현상유지 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물론 누가 후임자를 하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당회나 우리 권사회나 제직회에서 우리 일꾼들이 뿌리만 잘 박혀져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지금 나이층으로 볼 때에 중요한 멤버는 거의 은퇴한 뒤이거나 은퇴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만 해도 나이층들이 60대가 거반인데 그때되면 거의 은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키우자 그래서 당회도 좀 젊어지자 당회도 최소한 평균 연령이 50대 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에 장로가 됐다 해도 일을 하려면 10년 정도 있어야 제궤도에 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권사회도 좀 더 젊어져야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후임 때 와서는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교회로서 나가기 위한 청소부라고 할까, 또는 디자이너라는 역할을 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요 사명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꿈이나 목회철학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목사님의 모든 삶의 역정을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은 39세까지 공부하며, 학위를 몇개씩 가지고 있고, 신학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시다. 그러심에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학위를배릴 때에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으셨다는 말씀은 목사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해주었다. 대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목사님께서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목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인내하시며 자연스럽게 그런 계획들을 제시할 기회와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그저 목사님을 믿고 가자는 데까지 따라가는 일 일 뿐일 것이다.

▷ 목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구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했는데 통합이라고 해야 옳은지 확장이라고 해야 좋은지 참 어정쩡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정을 못 붙이는 일이 있는데 교구 문제는 특히 교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부분인데 ……

▶ 지금 교구는 일종의 국회의원들 지역구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일꾼을 잃었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개편으로 인해 일꾼이 들어온 곳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사회의 행정구역과 교회의 교구를 나누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구역이 다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 중심의 교구를 지금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아무래 나뉘어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4배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10만 교인,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구를 한번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에 교구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교인에 100개 교구를 내다보며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사님, 대년도 한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교인들한테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시고 싶은 사항, 어떻게 가자는 방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 그저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크리스챤이 되는 게 뭐냐?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역사의식이 생겨지고 아,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래서 집단적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각도에서 서서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자폐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주는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혈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심장마비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영적인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들,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도 중풍병에 걸리면 안됩니다. 너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성장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충현교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목사가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우리 교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영적인 자폐아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주는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혈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심장마비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영적인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들,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도 중풍병에 걸리면 안됩니다. 너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는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성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목사가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꿈을 안고 맞은 새해 '95

유난히도 다른 한 해보다
어둡고 힘겨운 '94
크고 작은 시련과 사고 속에
문 밖을 나서기 무서운 세상
내가 나 자신을 잊고
세상을 넘나들던 '94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가까운가 하면
하루하루 멀어지는 '94
뒤를 돌아보면 죄에 가리운 내 모습
한 발을 꺼내면 한 발이 빠지는 늪에
나의 갈 길 잊고 서성이는
죄의 굴레를 쓴 패륜아
영원히 탈출하고 싶은 '94를 보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21세기에의 도약
'95 태양은 다시 눈을 뜨고
푸른 꿈을 안고 맞은 새해
오늘 열린 이 아침의 광명은
어제의 하늘이 아니며
갇혀있던 조롱의 새
창공 날으는 희망찬 자유
새 궁창이 펼쳐지는 '95년 되게 하옵소서

저 떠오르는 태양과 눈이 마주칠 때
위대한 역사는 창조되며
새 하늘 바라보는 여유도 주소서
조용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성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새해 새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21세기를 힘껏 달릴 수 있는 믿음
이 교회 이 나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마음, 시간, 물질, 다 헌신하며
사랑, 지식, 총명, 풍성한 열매 맺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 의를 돌려
'95년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기쁨,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십자가 따라 살며
주의 섭리 속에 실수없게 하소서
'95 한 해가 순탄하게 하옵소서

김 운 섭(집사, 초등3부 교사)

'메시아' 연주를 마치고

작은 찬양대원의 한려한 은퇴공연

이 소 현(집사, 제1-1교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창조의 목적이다. 이 창조의 목적에 부응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정하시고 다섯살 전까지 '울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발성연습을 시키시어 유치부 찬양대원으로 봉사케 하셨다. 유치부 찬양대에서 성탄절에 부른 '탄일종이 땡땡땡…' 으로부터 나의 교회 찬양대 역사는 시작되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합창한 '메시아' 중 '할렐루야' 는 지금까지 그 감동이 남아있다. 대학시절은 사범대학 학생답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신앙교육과 전인교육에 힘쓰다 다보니 찬양대 봉사는 중단되었다. 35세에 성령으로 중생하여 회심하여 부르는 나의 찬양은 그대로 나의 신앙고백이 되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되고 내게는 강같은 평화가 넘쳤다.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귀는 찬양하는 성도를 두려워 한다' 고 루터도 말하지 않았는가? 길을 걷다가 또는 차안에서 좋은 음성이 들리면 다가가서 '찬양대에서 노래하면 참 좋을 음성' 이라고 칭찬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나이가 들면서, 또 교회 내외적으로 맡은 일이 많다보니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적당히'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에 4,5시간 모여 연습하는 시간에 거의 개근으로 출석하며 까운을 입는다 할지라도 구별된 위치에 서야 하는 찬양대원으로 젊은 대원들처럼 청바지에 운동화로 편하게 설 수 없고 정장은 물론 단정히 갖추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오는 피로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라는 말씀대로 맡은 일을 우선순위 1위로 놓고 죽도록 충성하려다 보니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작년 1월 친정 어머님이 쓰러지시어 지금까지 투병중이신데 작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속에서 사모곡을 부르면서 어머님 간병을 하면서도 열심히 연습에 출석하고 자주 지친 얼굴이 되어 대중앞에 서는 것이 심히 주저되었으나 찬양대의 자리는 꾸준히 지켰다. 피곤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도 일단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행복해지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되곤 했다.

금년에 교구와 구역 등 모든 조직이 재편성되면서 교구와 전도회 일꾼으로서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 위해 찬양대 은퇴를 계획하고 기도하였다. 그래도 마음에 서글픈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인지? 젊은 시절처럼 하고 싶은 일을 뛰어다니며 완벽하게 다 할 수 없는 건강 때문에 좋아하는 찬양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하랴. "겉사람이 후패되어 가는 것" 은 창조의 섭리인데…. 그런데 이것은 웬 은혜인지. 나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듯 지난 10월부터 연합찬양대에서 '메시아' 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헨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 로 준비해주신 자상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렸다.

45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들을 자주 불렀으나 금년 성탄절 축하로 충현연합성가대에서 연주한 9곡의 합창을 한번에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공연준비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전공자와 훌륭한 기량의 소유자들도 다수 있었으나 500여명의 아마추어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그 어려운 곡을 소화해 낼려니 지휘자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전대원들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긴장하지 않거나 연습에 꾸준히 참석하지 않은 대원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나이와 재능이 거론될 때는 자격지심으로 나도 도중하차할 뻔 했다. 그래도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나의 찬양대 은퇴공연인데 주인공이 좌절하면 안된다는 다짐과 한번 시작하면 총력투구하는 예의 완벽주의를 동원하여 토요일, 주일저녁 연습하는 3개월간 땀과 성실로 임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다른 모임의 초대는 모두 사절하였다. 그리고 집에 있던 레코드로 3시간에 달하는 메시아 전곡을 들어보기도하고 우리가 부를 합창곡은 일하면서도 감사하며 익히고, 협연한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는 아들의 자문을 듣기도 하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기에 긴장과 노력의 땀을 은혜와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다. 헨델이 가난의 밑바닥에서 56세 노년기에 눈물 흘리며 지은 곡인지라 과연 작곡자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고 준비 위원회의 수고와 기도 후원으로 연습 3개월 내내 은혜의 강속에 빠진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12월 들어 아이들 아버지를 따라 여러 모임에 참석했을 때 마이크가 내게 오게 되면 메시아를 소개했고 금년 성탄은 충현교회에 와서 메시아 감상으로 은혜 받으라고 초청하였고 오지 못할 경우는 집에서 조용히 레코드로 감상해 보라고 권유도 했다. 전화가 오거나 집에 찾아온 방문객들에게도 나의 성가대 은퇴공연인 메시아를 소개하고 초청하여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했다. 유명한 성악가의 은퇴공연이나 되는 것처럼 떠든다고…. 물론 500분의 1인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아마추어인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더 잘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서글픈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난 이번에도 깨달았기에 스스로 흥분하고 스스로 행복해 한 것이다. 행복감이 충만하다보니 자연히 표출하게 될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아니, 그것보다 메시아 우리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치는게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드디어 12월 23일 금요일 밤 8시, 5천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심지어 통로에 앉고 나중에는 서 있는 사람까지 많은 것을 보며 그 감동이 절정에 올라 감사를 되풀이했다. 비록 음악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정성의 연주를 받고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내가 맞이한 50번의 성탄중 메시아를 연주한 금년 성탄이 생애 최고의 성탄이라고 생각한다. 15년 전부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둘째 아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고 멀리 여행갔던 딸 아들이 내 공연을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와서 자리가 없어 3층 맨 뒷자리에 서서 관람하고 꽃다발까지 주었으며 은퇴 운운하며 떠든다고 내 홍보작전을 우스워하던 아이들 아버지는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취향을 알고 잘 보이지도 않을 나를 촬영해 주고 잘했다는 칭찬까지 해주었으니 더 바랄 나위도 없는 행복한 은퇴공연이었음을 감사한다.

특별히 시온찬양대에서 주신 공로없이 받기에는 너무도 큰 감사패를 송구스럽게 받으면서 화려한 막을 내렸으니 거듭 감사드린다. 이젠 결코 서글프지도 않고 미련도 없다. 불원간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

지난 성탄절을 지나면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어떤 젊은 여성도님이 다가와서 흰 봉투를 주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 고 하고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버렸다.

나중에 살펴보니 그 봉투에는 3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그래야만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온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랑의 성금은 사랑부(장애인들이 모인 교회학교)와 에바다부(농아인이 모인 교회학교)의 추천을 받아 5명에게 나누어 전달되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일이었다. 선한 일은 자신이 해놓고도 언제 한줄 모를 때 선한 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세상엔 사랑이 필요없을 만큼 부요한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자!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 이름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런 경험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새해를 맞이하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김 찬 곤
(목사, 제13교구, 소망부 지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9:17)

작금에 있었던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자금난 때문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옛날의 성공법만 믿다가 결국 도산한 경우들도 많았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듯 싶었는데 자만심 같은 것 때문에 경화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져 결국 도산해 버리고 만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가죽부대의 원리에서 보여주듯이 새 가죽의 팽창율이 헌 가죽의 팽창율보다 크기 때문에 찢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옛사람은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주사를 놓을 때 새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면 병에 감염될 확율이 40%나 된다고 한다.

기업이건 사람이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야만 발전이 있는 법이다. 낡은 것이 값나가는 것은 골동품과 고미술품 뿐이다. 특히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진다는 말(하나쉬)이 사역동사로 사용되면 '다시 세우다, 수선하다' 는 뜻이 된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

199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리라. 특히 올해는 교계에서 희년으로 선포한 해이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 50년마다 지켜지는 것으로 종들을 해방시키고, 빚진자의 빚을 면제해 주며, 땅에게도 안식을 허락하며, 땅은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것으로 피조물들의 해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는 해이다.

희년의 삶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삶을 보장하는 경제 정의를 이룩하는 일에기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는 통일을 위한 기도와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한 해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재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위탁하셨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저버린 잘못을 고백하며, 희년운동이 생명운동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

우리 겨레는 원대한 목표를 좋아하며, 목표에는 반드시 포부가 포함되어야만 흥이 나는 것 같다. 적당히 참여하는 일은 조금만 성취하여도 이내 자만하여 안주와 정체로 이어지곤 하였다. 우리들은 직급(職級)과 학식(學識)이 높다고해도 좀처럼 존경하지 않는 반면에,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인간적으로 통하는' 지도자에게는 맹신(盲信)에 가까운 신뢰를 보여준다. 직급과 규정에 의한 권위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구성원들로부터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투철한 솔선수범 정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만큼 평등정신에 투철한 민족도 없을 것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참여자 전원의 공생공사(共生共死)의 정신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지도자의 기능적인 역할이 생긴다. 이와 같은 모든 전제조건이 만족되고 나서야 신바람이 났다. 신이 나서 한 일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작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바람이 나서 움직이는 터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는다. 예수께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음을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이념과 체제와 법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인도적 삶의 회복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인식하고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인내를 배우는 한 해

홍 문 석
(청년1부 회원)

"또 네가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94년을 보내고, 95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95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인생의 목표아래 내년에는 성품적으로는 인내를 배우는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인내하여야 할 순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황을 안좋게 만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내력 훈련을 통해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두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행하는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나눔으로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또 끈기있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기도 제목의 영역들을 더욱 넓혀서 지속적으로 2-3년간 끈기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약한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진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전화하고 기도하며 막혔던 담을 헐어주며,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95년에는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청년1부를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살후 1:3, 4)는 말씀 그대로 고난(?)의 참된 기쁨과 환난 중에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청년1부에서 함께 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 서로간의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모임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며,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풍성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95년에도 여러 연단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여 극복하여 더욱 성숙한 모임이 되기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날, 365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오직 1년 이라는 시간만이 남아 있다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지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다.
부모님께 내가 지은 따뜻한 식사를 차려 드리고
친구들에게 남아있는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싶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정성껏 감사의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남기고,
그동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 간직하고,
그동안 잘못한 것 남김없이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365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날들을 선물로 주셨다. 부모님께 몇년 동안 계속 저녁을 해 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잘해줄 시간도,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할 시간도 넉넉하게 선물로 주셨다.

1995년이라는 선물을 나는 또 받았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 감사하며,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련다. 값진 선물로 만들련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라의 새해일기)

새해에는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대신 감사와 찬양을
방관과 반목대신 참여와 협조를
갈등과 방해대신 충성과 협력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시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못할 짓을 한 무리들
엄청난 죄의 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 할 자 넓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
넓게 크게 용서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중오를
감사의 커다란 용광로에 불태우게 하소서
감사의 큰 물결 속에 흘러 보내게 하소서
공기를 주신 것을
생명을 주신 것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기쁜 일이 많게 하옵소서
50년전 조국광복을 선물로 주었듯이
새해에는 조국통일을 선물로 주옵소서
세계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지방화의 기틀이 굳게 잡히게
선진화의 문턱이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게 하시고
착하고 선한 백성이 되어
나보다 남을
개인보다 단체를
단체보다 나라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허세보다는 신속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이제 새해에는 복된 일, 기쁜 일, 밝은 일이
우리 주변에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1995년 새해아침

박 철 구(집사, 중등2부 부감)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일(월) 97 민족 통일 성령화 대성회 여성지도자 신년 기도회 신년사, 한국 교역자회 신년 하례회 축도,
   5일(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시무예배
   · 신성종 목사님 : 5일(목) 극동방송 신앙논단 「하나되게 하소서」 대담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95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새해를 계획하며 경건하게 지내고,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4.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사 국정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이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1995년도부터 헌금위원의 전문화를 계획해 온 예배위원회는 이를 위해 헌금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우선 각 부 예배시 본당 1,2층으로 구분하여 주력교구를 정하고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모집하되 주력교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가능토록 했다. 헌금위원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남,녀 서리집사로 응모가 단정하고 60세 이하로 1년 52주 동안 결석할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력교구는 다음과 같다.

예배	층	필요인원수	주력교구	교구별동원인원수	담당전도사
1부	1층	30명	1-1, 1-2	15명*2개 교구	윤인숙
2부	1층	65명	2-1, 2-2, 3-1, 3-2	16명*4개 교구	정복인
	2층	30명	4-1, 4-2, 11-1	10명*3개 교구	배옥인
3부	1층	70명	6-1, 6-2, 7-1, 7-2, 8-1, 8-2	12명*6개 교구	장영자
	2층	60명	5-1, 5-2, 9-1, 9-2, 10-1	12명*5개 교구	현정남
4부	1층	50명	11-2, 12-1, 12-2	17명*3개 교구	손미희
	2층	30명	10-2, 13-1, 13-2	10명*3개 교구	오정숙
합계		335명	26개교구*13명(평균수) = 338명		

교회학교 장소 변경

새해부터 교회학교의 예신부와 유아부가 신설됨에 따라 예배장소가 많이 변경됐다. 또한 새로 신설된 예신부와 유아부는 1월 8일부터 모이게 된다. 변경된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다.

- 유아부 교 212호 오전 8시 50분~10시
- 초등1부 교 307호 오전 8시 50분~10시
- 초등3부 교 407호 오전 8시 50분~10시
- 초등5부 교 514호 오전 8시 50분~10시
- 초등6부 교 507호 오전 8시 50분~10시
- 예신부 교 208호 오전 11시~12시 40분

1995년도 상조회 연락처

새해를 맞으며 충현상조회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충현교회 교인으로 상(喪)을 당한 가정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속히 연락하여 주십시오.

1. 해당 교구 교역자에게
2. 상조회에서
   · 회장 / 김여순 장로 자택 483-7536
   교회 552-7750
   호출기 012-242-9627
   · 총무 / 최명환 장로 427-1980
   · 서기 / 정정주 장로 552-8200(교.285)
   · 차량담당 / 김종원 집사 997-4039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구역예배 및 금요집회 쉬기로

교회는 연초의 바쁜 일정, 1월말에 있게 되는 설날 등을 고려하여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구역예배와 금요집회, 수요 구역장 성경공부를 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주일 교구모임과 교역자들의 가정 심방은 계속하게 된다.

중등2부에 김광국 목사

교회는 중등2부 지도에 김광국 목사를 임명했다. 전임 장상기 목사는 부산의 신부산교회로 가시게 되어 우리 교회를 사임했다.

사랑의 쌀 저금통 계속접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지난해 8월 28일 배부한 저금통 10,000개 중 지난 주일까지 582개가 회수되어 9,623,130원을 송금했다. 아직까지 저금통을 교회에 내지 않은 성도는 저금통을 채워서 사무국으로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저금통을 채우려면 집안에 있는 다른 저금통들보다 먼저 채워야 한다는 가족간의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쉽게 될 수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10,000개가 모두 회수되도록 마음들을 모아보자.

1월 8일, 태신자카드 작성

전도위원회는 금년에 온 교인이 각자 최소한 한 명씩 전도할 목표를 세워놓고 연초부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1월 8일 주일에 태신자카드를 작성하고 태신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전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 교우는 미리미리 자신의 태신자를 기도해는 중에 정하였다가 1월 8일에 작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4년도 성경통신강좌 시상

교회는 94년도 성경통신강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각 교구별로 시행한다. 각 교구에서 우수자 2명씩과 35주 이상 제출자에게 시상하게 되는데 우수자 52명, 35주 이상 제출자 1,250명이다.

성경통신은 매주 주보에 게재된 성경통신 문제에 답을 적어 제출하면 교구 담당 전도사가 채점 후 돌려주고 관리해 오는 것으로 1년 동안 이를 잘하게 되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정독할 수가 있다.